조선도공 명맥 이어온 심수관 선생, 전북 찾다

'도방잡화도자기 이야기' 주제로 도민 국제교류이해강좌 열어

일본에서 400여년간 조선도공의 명맥을 이어온 심수관가 15대 심수관 선생님이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국제교류센터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15대 심수관 선생을 초청, '도방잡화도자기 이야기'를 주제로 제1회 도민 국제교류이해강좌를 열었다.

심수관가는 1598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 살다가 일본 가고시마현으로 끌려간 청송 심씨 가문의 도공 심당길과 그 후손들이 현지에서 400여 년간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켜 이룩한 도자기 명가다.

도예가 심수관 선생은 선조들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본명 대신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 후 이탈리아 국립미술도예학교를 거쳐 1990년 경기도 여주에서 옹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등 이론과 실기를 닦고 1999년 심수관이란 이름으로 습명(襲名 :선대의 이름을 계승함)했다.

이번 특강은 일본 땅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예술적 자긍심을 계승 발전시켜 일본 3대 도자기중 하나인 사츠마도자기를 탄생시킨 심수관가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그 안에서 한일교류의 의미를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재용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아동생활시설 애육원 방문 푸짐한 선물 '선사'

김생기 시장은 제95회 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아동생활시설인 정읍 애육원(원장 서완종, 34명)을 깜짝 방문해 푸짐한 선물을 전하고 격려했다.

김시장은 이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장난감과 학용품 등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어린이날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되새겨 보기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며 "놀 때는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읍민의 날 화합 한마당잔치 성황리 개최

읍 승격 제38주년 기념 '제6회 임실읍민의 날 화합 한마당잔치'가 2일 임실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심민 군수, 문영두 군의장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재전·재경 향우회원 및 읍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푸짐한 경품잔치 등이 실시됐다.

임실읍 농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향우회원과 읍민이 함께 참여하는 투호놀이, 고리걸기, 윷놀이 등 민속경기와 체육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노래자랑, 신나는 예술버스, 초대가수공연 등 다채로운 예술공연은 주민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열린 읍민의 장 시상식에서 효열장 박정자(81세), 윤영자(51세), 문화체육장 박영호(53세), 봉사장 전점례(67세), 애향장 박대식(68세)씨가 수상해 향토의 명예를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수질오염 사고대비 통합 방제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2일 천천저수지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수질오염 사고대비 통합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농업용저수지 녹조 발생시 녹조방지대책 및 신속 대처로 녹조제거 제분 살포를 통한 녹조생물 흡착침전과 수질오염 사고시 오일펜스 설치로 유류 확산 방지 및 유흡착포를 사용한 유류제거 훈련을 실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익산시민의 장, 공정성 · 투명성 기반 선정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모범시민에게 수여되는 '익산시민의 장'을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를 1,2차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1차 심사는 분야별로 심사위원들의 공적내용 검증을 통해 분야별 2인을 전체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2차 전체심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다시 공적내용과 도덕성 등을 놓고 재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사전에 공적자료를 배부하여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게 했으며, 자료 검증을 위해 부문별 간사로부터 공적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올해 익산시 명예를 드높인 6개 부문의 시민의 장 수상자를(문화장, 체육장, 산업장, 봉사장, 효열장, 애향장)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2일 서동축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효자지구대, 아동범죄예방 관내 지킴이집 합동점검

전주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귀)가 아동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지킴이집 1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주로 학교주변에 위치해 불량청소년 선도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에게 신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효자지구대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지킴이집과 연계하여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퇴직경찰관과 지구대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 8명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현귀 효자지구대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들이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아동범죄 예방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고창서 흥덕파출소, 현장학습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흥덕파출소(소장 김광중)에서는 최근 성내면에 위치한 성내중학교를 방문해 충남 서천으로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생들과 관광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점검 및 음주여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현장학습을 떠나는 버스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및 졸음운전과 불법운행 금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는 안전띠 착용과 차량 내에서 소란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김광중 파출소장은 "도로에서 끼어들기 등 무리한 운행을 지양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현장학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사제보 288-9700